



긴급재난지원 지급에 따른 민간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

201621717 김진섭

201621737 신찬식

201721791 어민석

201821824 유민상

AJOU UNIVERSITY

목차

1 장. 서론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장. 본론	4
2.1 선행연구	4
2.2 분석모형	6
2.3 분석결과	7
3 장. 연구 결론 및 한계점	11

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일상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고,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 요인들은 역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제활동 역시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일거리가 사라져 무급 휴직에 내몰린 근로자, 영업을 제한된 업종의 자영업자는 당장의 생계유지를 걱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대면하거나 집단적으로 향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의 매출이 급감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은 지출을 큰 폭으로 줄였고,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아졌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세계적인 방역위기로 이어졌고, 여러 국가들에서 의료체계가 붕괴됐다. 또한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로 경제활동 또한 크게 위축되었으며 특정 지역을 통째로 봉쇄하는 등의 사례들도 관측되었다. 다행히 한국 사회는 과거 메르스 때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빠르게 방역체계를 갖추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 격리한 후 감염병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였고,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로 추가 확산을 예방하였다.

정부는 긴급하게 기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보조금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위기에 대처하였다. 고용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같은 취약계층에 임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가구와 기업의 체감 경기는 과거 경험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상으로 급격히 얼어붙었고,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지속될수록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가계소비, 경제성장률, 대내 수출입 등이 위축되었고,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민간소비지출도 크게 감소되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시행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과 함께 소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급되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원과는 달리 국가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실행되다 보니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초유의 상황에서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로 목표한 대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파악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가구의 지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장. 본론

1. 선행연구

KDI에서 발표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정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변화하는 소비진작효과, 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사업의 경영안정효과를 살펴봄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매출액 변화의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일정기간 내에 사용해야하는 소비쿠폰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저축도 불가능하고 일정기간내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소비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단의 지출을 합산하여 소비변화를 파악하려 했지만 실제로 현금 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얻기 힘들기 때문에 8개의 카드사의 시군구별, 업종별, 주별 합산 카드매출액(신용카드, 체크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에는 2020년 1분기에 비해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소비효과를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증가율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소비 심리의 회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 변화량도 다르기 때문에 확진자 수 및 여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해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시도별 전체 카드매출액의 추이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로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적 상황의 매출액 추정값을 예측하고 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현된 매출액과 비교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의 카드매출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과 지역별 카드매출 추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합성대조군을 형성하고 이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이중차분기법 활용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를 살펴보면 2020년 2분기 실질총생산이 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확산 줄어들며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수가 급증한 2020년 1분기에 국내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실질총생산이 전기대비 1.3% 감소, 민간소비가 6.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업 생산이 축소되었고 2020년 2분기에는 주요국 신규확진자수 급증으로 인해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실질총생산이 전기대비 3.2%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는 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5월, 6월에 소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의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5.11~6.21) 전년 동기 대비 약 7.3% 증가했고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7, 8월 6.1% 수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11.1%p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후 전체 카드매출액은 시도 및 전국 신규확진자 수의 변화로 설명되는 카드매출 추정금액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업종별 분석을 진행했다. 사용가능업종과 불가업종을 구분

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별 증감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불가업종에서는 유흥/주점,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매출감소가 높게 나타났고 가능업종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으로는 여행, 헬스, 사우나 등이 해당되었다. 또한, 시도별 분석을 진행했고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 제주,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에서 진행된 분석모형과 분석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해당 연구분석에서는 각 시도의 전체 카드매출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회귀모형을 설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각 시도별 전체 가맹점의 매출액 합산 값의 시계열 추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긴급재난지원금 이전 시기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했다. 2020년 4주~19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고 설명변수로는 작년 동기의 시도의 카드전체매출액과 각 시기의 전국 및 시도 내 주간 및 과거 2주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포함된다. 종속변수로는 시도 내 전체 카드매출액 합산이다.

<표1> 선행연구 회귀분석 모형

$$\text{카드매출}_{i,t} = \alpha_i \text{카드매출}_{i,t-53} + \beta_{1i} \text{주간 전국신규확진자}_t + \beta_{2i} \text{주간 시도신규확진자}_{i,t} + \beta_{3i} \text{과거 2주 전국신규확진자}_t + \beta_{4i} \text{과거 2주 시도신규확진자}_{i,t} + u_{i,t}$$

$$i = 17 \text{개 광역시도}, t = 2020 \text{년 } 4 \sim 19 \text{ 주}$$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이전 실제 카드매출과 예측값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확진자수 증감에 따라 시도의 카드매출량 이 잘 설명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10주차에는 모든 지역에서 카드매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수로 설명되는 예측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카드전체 매출량은 확진자 수 변화로 예측되는 예측값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고 이는 현실적으로 학부생 입장에서 카드 매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움이 존재했다. 따라서 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기 보다는 통계청에서 소매판매액지수를 활용하여 더 포괄적인 소매판매액 지수를 활용했다. 하지만 계절조정이 들어간 데이터와 불변지수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소매판매액 지수 증감율을 추가하여 본연구에 다양성을 추가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를 조사했고 소매판매액과 동일하게 증감율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설명변수는 전년 소매판매액지수, 전국신규확진자, 전년 소매판매액지수 증감율, 전국 신규확진자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는 소매판매액지수를 설정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상소매판매액 지수를 추정해서 실제 값과 차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한다. 소매판매액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불변지수와 계절조정지수를 바탕으로 2개의 OLS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20년도 5월에 실시된 지원금 정책과 21년도 9월에 실시한 지원금 정책을 분석하여 결과 도출 값 중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구간을 확인해 보다 효과를 다양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2. 분석모형

본 절의 분석에서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회귀모형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소매판매액지수의 시계열 추이를 설명하는 모형을 작년소매판매액지수와 코로나19 확진자수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원계열 자료와 더불어 계절조정이 반영된 소매판매액 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을 통해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2020년도 코로나 19확진자 수와 2021년 확진자수를 회귀분석에서 구분을 해주기 위해 더미변수를 사용한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추정을 한다. 이렇게 모형을 통해 추정된 추정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소매판매액지수데이터와 비교하고자한다. 회귀모형은 다음의 식에 나타나있으며 네 가지 회귀모형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표 2-1> 소매판매액지수,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회귀분석 모형

$$\text{소매판매액지수}_t = \alpha \text{소매판매액지수}_{t-1} + \beta \text{월별 전국신규확진자}_t$$

$t=2020\text{년 } 1\text{월} \sim 2021\text{년 } 12\text{월}$

$$\text{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_t = \alpha \text{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_{t-1} + \beta \text{월별 전국신규확진자}_t$$

$t=2020\text{년 } 1\text{월} \sim 2021\text{년 } 12\text{월}$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소매판매액지수이다. 설명변수로는 작년 동기의 소매판매액과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포함된다. 두 번째 회귀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이다. 설명변수로는 작년 동기의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과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포함된다.

<표 2-2> 소매판매액지수,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과 교차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

$$\text{소매판매액지수}_t = \alpha \text{소매판매액지수}_{t-1} + \beta \text{월별 전국신규확진자}_t + \gamma \text{월별 신규확진자}_t \times D_k$$

$t=2020\text{년 } 1\text{월} \sim 2021\text{년 } 12\text{월 } k=2020\text{년}=0, 2021\text{년}=1$

$$\begin{aligned} \text{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_t = & \alpha \text{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_{t-1} \\ & + \beta \text{월별 전국신규확진자}_t + \gamma \text{월별 신규확진자}_t \times D_k \end{aligned}$$

$t=2020\text{년 } 1\text{월} \sim 2021\text{년 } 12\text{월 } k=2020\text{년}=0, 2021\text{년}=1$

세 번째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소매판매액지수이다. 설명변수로는 작년 동기의 소매판매액과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더불어 월별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더미변수를 곱해준 교차항이 포함된다. 네 번째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이다. 설명변수로는 작년 동기의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과 월별 코로나 19 확진자 수와 더불어 월별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더미변수를 곱해준 교차항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네가지 회귀모형과 더불어 소매판매액지수의 원계열자료와 계절조정자료 2가지를 통해 분석을 해 총 8가지의 회귀분석데이터를 활용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상적인 상황의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을 예측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의 실제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값이 예측치보다 크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예측치에 비해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분석결과

아래 표들은 위의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세를 나타낸 OLS분석 표들이다.

<표3-1> 소매판매액지수,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 경상지수

	OLS1	OLS2	OLS3	OLS4
상수항	46.2*** (22.826)	28.796(23%) (23.419)	4.131* (1.198)	4.873* (1.187)
전년동월	0.625* (0.199)	0.788* (0.207)	-0.83** (0.329)	-0.651** (0.322)

신규 확진자수	0.0001** (3.0475e-05)	-0.0003(18%) (0.0002)	6.1104e-05** (2.3642e-05)	-0.0002**** (0.0001)
연도별 Dummy 교차항	-	0.0003**** (0.0002)	-	0.0003**** (0.0001)

-OLS1, OLS2는 소매판매액 지수(경상지수) 기준

-OLS3, OLS4는 전년도 대비 소매판매액 지수(경상지수) 증가율 기준

-아래()안은 표준오차(S.E)

-, **, ***, **** 각각 유의확률 < .01, 1%, 5%, 10% 이내-

위의 <표3-1>는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을 경상지수를 통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에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과 더불어 설명변수에 연도별 교차항이 포함된 OLS4 회귀분석이 통계적 유의성을 띄는 것을 볼 수 있고 OLS1,2,3 회귀분석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2> 소매판매액지수,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 계절조정지수

	OLS5	OLS6	OLS7	OLS8
상수항	104.72* (29.72)	88.085** (31.382)	-0.026(96%) (0.648)	0.033(96%) (0.731)
전년동월 소매판매액지수	0.085(75%) (0.264)	0.239(40%) (0.281)	0.159(36%) (0.171)	0.165(36%) (0.177)
신규 확진자수	6.8829e-05* (2.0371e-05)	-0.0001(35%) (0.0001)	9.1661e-06(50%) (1.3656e-05)	-1.1e-05(91%) (0.0001)
연도별 Dummy 교차항	-	0.0002**** (0.0001)	-	1.9773e-05(84%) (0.0001)

-OLS5, OLS6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 기준

-OLS7, OLS8는 전년도 대비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 증가율 기준

-아래()안은 표준오차(S.E)

-, **, ***, **** 각각 유의확률 < .01, 1%, 5%, 10% 이내

위의 표 <3-2>는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을 계절조정지수를 통해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진행결과 계절조정지수를 통해 바라본 OLS5,6,7,8 회귀분석에서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를

전년 동월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과 더불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연도별 더미변수 교차항을 설정한 OLS4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추정치를 통해 살펴본다.

<표3-3> OLS4를 통한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예측치와 실제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비교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전국)	예측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차이값(%)
2020-01	1.82	0.975	0.845
2020-02	-2	4.256	-6.256
2020-03	-7.84	0.672	-8.512
2020-04	-2.24	2.621	-4.861
2020-05	1.54	1.397	0.143
2020-06	6.27	2.645	3.625
2020-07	0.36	3.546	-3.186
2020-08	0.18	-0.229	0.409
2020-09	4.15	0.936	3.214
2020-10	0.09	1.928	-1.838
2020-11	-1.16	-0.297	-0.863
2020-12	-2.06	-5.004	2.944
2021-01	0.36	2.932	-2.572
2021-02	8.59	5.239	3.351
2021-03	11.79	9.013	2.777
2021-04	9.18	5.558	3.622
2021-05	3.72	3.130	0.590
2021-06	2.22	0.070	2.150
2021-07	8.39	4.397	3.993
2021-08	4.3	4.772	-0.472
2021-09	3.98	2.387	1.593
2021-10	7.94	4.837	3.103
2021-11	4.79	6.284	-1.494
2021-12	6.8	9.109	-2.309
2020-01	1.82	0.975	0.845

위의 <표3-3>은 OLS4회귀분석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소매판매액지수 증

가을 예측치와 실제 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의 데이터와 이들의 차이값을 나타낸 표이다. 표를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와 사용기한인 2020년 5~9월과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와 사용기한인 2021년 9월~12월 시기의 차이값을 살펴본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를 먼저 살펴보면, 2020년 5월과 6월에는 차이값이 0.143, 3.625로 양의 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2020년 5월과 6월시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7월에는 차이값이 음의 값을 보여주고 이후 8,9월에는 양의 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7월 이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두 달 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90%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1년 9월 ~ 12월을 살펴보면, 9월과 10월에는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의 차이가 양의 값을 보이며 재난지원금 지급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11월,12월에는 음의 값을 보이며 재난지원금 지급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다르게 이후 계속해서 음의 값을 보이는 이유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첫 두 달간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90%가 사용이 되었고, 코로나19기간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심리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3장. 연구 결론 및 한계점

1. 결론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예상소매판매액 지수를 추정해서 실제 값과 차이

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21년도에 이루어진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의 효과 또한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가계 소비가 증가한다는 점, 둘째,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이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 ~ 2021년 12월 소매판매액 지수를 활용하여, 소매판매액지수 증감율을 확인하였고, 보건복지국 자료를 통해 2020년 1월 ~ 2021년 12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감율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OLS 분석을 한 결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5월~9월까지 소비 기간 동안 5월과 6월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재난지원금 지급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재난지원금 사용액의 90%가 두 달간 사용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2021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바로 10월까지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후인 11월부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의 경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차이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익숙해지며 단계가 4단계로 유지되어도 국민들의 소비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소매판매액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아, 두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 이후 두 달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두 달 동안 지급액의 90%가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0년 2021년 2차례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민간소비 부문에 소비진작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효과가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단기적으로 소비진작효과를 주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계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단기적 정책으로 민간소비 부문에 소비진작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몇 가지 한계점 또한 존재하였다.

첫째, 소매판매액 지수 자체가 포괄적인 집계변수이기 때문에 민간소비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민간소비 측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카드매출 데이터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소매판매액 지수를 활용한 점이 한계로 존재한다.

둘째, 소매판매액지수데이터가 월별로만 존재하여 주간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가 존재한다. 월별 데이터로만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져 회귀분석 예측값이 주간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존재한다.

셋째, 업태별, 지역별 소매판매액지수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소매판매액지수를 전국단위의 데이터로만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업태별, 지역별에 따른 코로나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존재한다.

참고문헌

이태석,김미루,오윤해,이영욱(202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연구 ii」, KDI한국개발연구원, 5-62p